



5면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에 들어선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음 8월 10일) 제358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정기국회 예산·입법 상호 협력체계 구축

전북자치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의 개최
정책위 의장·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대거 참석
도, 도정 핵심사업·현안 국회단계 지원 요청
민주 중앙당, 새만금 사업 등 당 차원 지원 약속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예산 관련 국회단계 대응 핵심사업 및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 및 입법 활동과 관련,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 김문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이, 이원택 도당위원장, 정동영·이춘석·한병도·윤준병·박희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김관영 도지사,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장연국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을 이뤄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지정, 원광대 글로벌 캠퍼스 30 선정 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해 준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운영법 등 당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을 당 입법과제로 채택해 준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제 중단되었던 새만금 SOC 사업은 올해부터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도민의 상실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한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 개발사업,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를 열고 있다.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한 도정 핵심 사업으로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동물용의

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 △플렉스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기업 제품 표준화 지원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증자 생산기지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모두예술골플렉스 건립 △전주부성 복원 정비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용지 정착농민 현업축사 매입사업(2차)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어업위기 대응 대책

소득원 개발(해양여가산업연계) 등이다. 이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 제정 △전북특별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 등 7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9월 생계급여 조기 지급
수급자 경제부담 줄인다

전북자치도, 이달에 한해
13일로 앞당겨 지급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원래 매월 20일에 지급되지만, 추석 연휴로 인한 소비 지출 증가를 고려해 9월에 한해 13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13만4,403명이며, 355억7,1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생계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정기 급여 지급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13일까지 모든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바란다"며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 신재생에너지 혁신 거점 '새 출발'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신재생에너지 혁신 거점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강입준 군산시장, 도·시의원 그리고 유관기관 및 기업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돼 지상 5층(연면적 5,844㎡) 규모로 올해 7월 준공하였으며 위탁기관 선정 및

새만금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개소
내달 중기업 입주 시작... 에너지산업 교류·혁신 촉진

시범운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일 개소식을 맞이했다. 개소식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센터 구축 경과보고, 노고자 표창 수여, 커팅식 및 제막식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 혁신 인프라 관계기관 3차 회의가 열려, 센터 활성화 방안 및 국가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에서 인프라 조성 및 에너지

중점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 입주 및 업무공간, 다양한 회의실을 갖춰 기업과 기관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에너지 특화기업 발굴,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기업 유치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센터는 입주할 기업(관)을 모집 중이며, 10월 중으로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 공유와 활



11일 새만금 2공구 연구시설 용지에서 열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며, 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재생에너지 혁신 촉진, 센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새만금 2공구 연구시설 용지에 위치하며, 혁신라운지,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인근

기업과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에너지산업의 교류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강입준 군산시장은 개소식에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새

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개소는 전북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센터운영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글로벌 에너지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순희 새만금청 차장은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에 에너지산업이 중점 육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적·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군산=이재훈 기자

특별인사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시 디지털 교과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 학습 **학력이 쑥쑥**